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이 원 호

2. 녹색도시 춘천을 꿈꾼다 | 3. 통일한국운동은 시대적 사명 | 6.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만천교회 | 9. 그리스도인 당신은 땅의 소금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7년 6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3호**

통일 기도문

2004년 기도문 중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굽은 것을 바르게, 애통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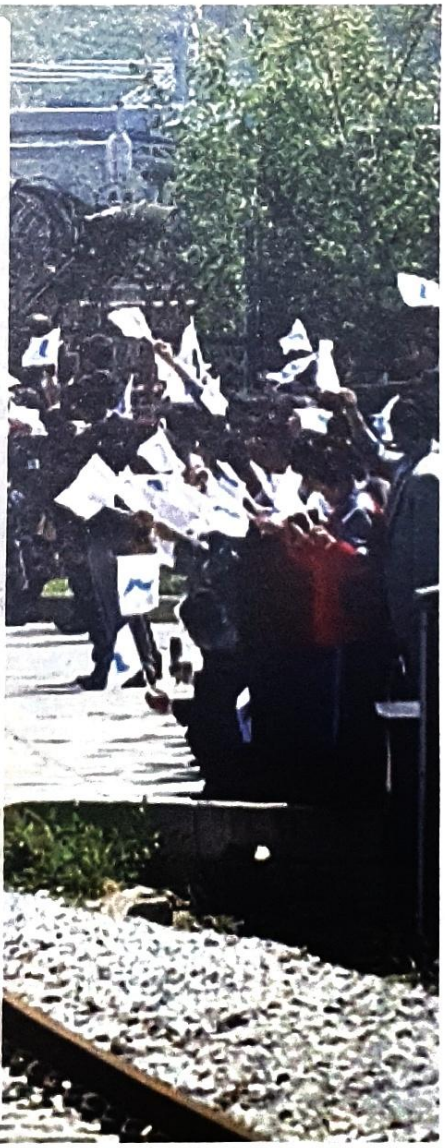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동시에 경험한 민족,
이 아프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민족에 따라 붙는 꼬리말이 되었는데도
평화와 통일의 과업을 성취해야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세월의 요동에 휘말려 지난 예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단의 십자가를 진 서러운 민족에게
희망의 빛을 던지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지다주었습니다.

분단의 장벽이 여전히 이 땅을 갈라놓고 있지만
남과 북의 형제자매들은
장벽을 넘나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비쁨으로 지쳐도
장벽 너머에 사는 동포를 위해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분단의 굽은 역사를 바로 펴서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
마침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이루어질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말씀

시편 67:5

하나님이여 만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춘천홀리클럽 창립11주년 성시화선교대회**

성시화의 진원지 춘천에 도시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이때, 홀리클럽 창립 기념 선교대회를 통해 새로운 드약의 발판을 이루며, 계층별 다양한 홀리클럽이 조직되도록 기도하자.

·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한국 춘천대회"**

7월 24일 강원대에서 열리는 "2007 성시한국 영어별 통일한국 춘천대회"를 통해 이 시대에 맞는 통일의 비전이 온전하게 확립되도록, 특히 이 대회를 기반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리며 복음적 통일방안이 이뤄지도록.

· **희망과 생명의 도시 춘천**

정치와 경제의 지도자들이 춘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헌신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뤄가도록, 또한 성시화의 비전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자.

· **이단문제의 해결**

시민들의 영혼을 현혹시키는 이단의 역사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땅에 미혹과 이단의 영들이 결박되도록 깨어서 적극 기도해야 할 때이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받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건강한 춘천의 변화와 발전에 최선의 협력을 기울이며 성시 운동 비전에 적극 참여합니다.

※모든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최상의 서비스의 거리

고·객·을·최·고·로·생·각·하·는·상·가

춘천명동상가번영회

TEL : 033)242-0767

1. 불우이웃돕기, 베트남장학사업, 노인경로잔치 등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한국문화의 진원지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표 쇼핑 명소로 성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춘천 문화 예술의 중심거리로 가꾸고 만들겠습니다.

춘천명동상가번영회 회장 윤헌영

녹색도시 춘천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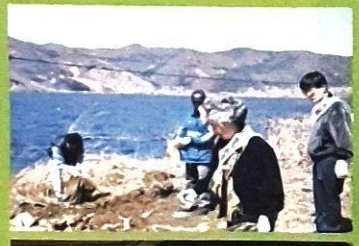


춘천환경운동연합 강명찬 사무국장과의 인터뷰입니다.

6월 5일은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제정된 "환경의 날"이다. 이에 춘천 인근지역의 환경을 조사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보다 쾌적하게 가꾸기 위한 제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춘천환경운동연합을 찾았다.

▶춘천환경운동연합의 주요 활동은?

자연정화, 하천변 나무심기, 차 없는 거리 행사, 춘천시내 소공원 조성사업, 각종 댐반대 운동(등강댐, 내린천댐, 한탄강댐), 춘천환경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인제 양구수계에 대한 친환경적 북구 방안 마련, 소양강 흙탕물 저감대책 마련 등 깨끗하고 맑은 도시를 향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춘천지역 환경단체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춘천지역에는 17-18개 정도의 환경관련단체들이 있다. 환경관련단체들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특히 자생력이 없는 단체들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종종 있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춘천지역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환경문제는?

1) 첫째로 북한강을 잘 보전하는 일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보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대자본들이 춘천, 홍천에 몰려오면서 대단위로 골프장, 리조트, 펜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자본의 유입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춘천지역의 대부분 토지 소유자들이 외부인이기 때문에 개발이득은 고스란히 외부인에게 들어간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가족공동체 붕괴만이 남을 뿐이다.

2) 두 번째로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이다.

필수불가결한 시설은 지역 내에 유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물처리장이나 화장장, 폐기물 소각장 등. 그러나 현재 춘천시는 이러한 시설을 유치할 장소를 찾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유치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남해군(경상남도)이나 제천시(충청북도)의 경우이다. 남해군이나 제천시는 꾸준히 홍보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시설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춘천시가 본받아야 할 전략이라 하겠다.

3) 도심하천으로 춘천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공지천의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문제이다.

처음, 춘천시에서는 공지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다. 많은 환경단체들이 그 결과에 만족해서 용역 결과에 지지를 보냈으나, 이후 설계변경이 7번이나 되면서 현재로서는 콘크리트 쌓은 것 말고는 특별히 해놓은 것이 없다. 물론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전거 도로를 낸 것은 잘된 경우라 하겠다.

4) 도시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도시녹지공간의 전국 평균은 60%정도인데, 춘천시는 군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만을 놓고 볼 때, 19%에 불과하다. 또한 80여개의 공원이 거의 놀이터 수준이어서 공지천을 제외하고는 공원이라고 할 만한 도시공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춘천은 여름철에 '열섬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열섬현상은 분지지역의 특성인데, 녹지가 부족해서 열섬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구시는 담장을 허물어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옥상에 텃밭을 가꾸어 녹지조경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해온 결과 열섬현상을 많이 극복했다.

5) 미군부대오염문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미군부대 오염문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군부대 내 모든 토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기름유출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사능문제도 우려된다. 정보에 의하면 노태우 정권시 춘천 미군부대에는 군산기지에서 옮겨온 핵배낭, 핵미사일 등이 있었다고 한다. 핵 존재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실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군부대를 춘천시에 반환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 미군부대 활용문제는 춘천시가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야한다.

춘천시는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도 이미 환경보존이 곧 경제적 소득으로 연결되는 시기로 넘어오고 있다. 춘천시는 천혜의 자연적인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춘천시는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춘천시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하였던 관광사업, 레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환경보존이 경제적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일관성 있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베계섭 전 시장은 지식, 산업도시를 표방하여 벤처와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했다. 유종수 전 시장은 레저 도시를 표방하며 레저 총회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 춘천시장은 레저 도시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 같다. 정책의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후임 시장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춘천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춘천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어진다. 현재 운영위원의 50%이상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자연을 우상화하면 안 되지만 인간은 자연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춘천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부탁드린다.

[취재 정재호, 사진 김미경]



회원 가입 안내

-회원은 월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회원은 춘천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 우선권과 할인 혜택.
-회원은 환경전문집지인 함께 사는 길 을 월1회 무료구독.
-회원은 환경 관련된 기사와 자료를 이메일 또는 서면제공.
-회원이 되면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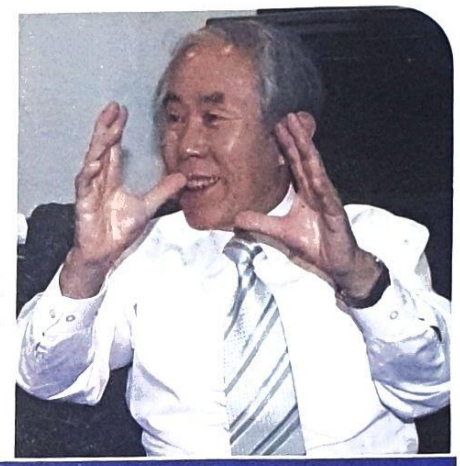
회원가입 문의

033)252-1098, kangsan007@korea.com / chunchon.kfem.or.kr

한복 침구 예단
線 혼례이야기
혼례의 새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팔호광장 사거리에서 강원대 후문쪽 120M
HP 016 347 6614 T 033 252 1525

춘천성시합창단
www.club.cyworld.com/ccachoir
(클럽에서 춘천성시합창단을 찾으세요)
너레디적인
간판,현수막
십자가네온
현황판,실사
(사진출력)
인쇄
(명함,포스터,팜플렛)
TEL : 033)255-8644
FAX : 033)252-6676
H. P : 010-6383-8228

통일한국운동은 시대적 사명!



성서한국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손봉호 대표
(전 동덕여대 총장,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문화포럼)와 인터뷰입니다.

손봉호 대표는 한국교회의 이원론적이고 탈역사적인 신앙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봉사사역을 실천하였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창립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의 양심과 정의 실천에 앞장섰던 한국의 대표적 사회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사회, 문화,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주창하고 이끈 정직, 검소, 절제운동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매우 크다. 현재 그는 성서한국 공동대표,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샘물호스피스 이사장, 밀알복지재단 이사, KBS-강태원 복지재단 이사장, 시민정보 미디어센터 이사장, 서울문화포럼 대표로 섬기고 있다. 오는 7월 24일 강원대 캠퍼스에서 성서한국 주최로 열리는 "2007년 통일한국대회"를 향한 간절한 염원과 시대를 꿰우는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자.

성서한국운동은 첫째로,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한다.
둘째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을 보고,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성서한국운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복음화와 성서한국운동을 비교 구분한다면.

복음화는 예수님을 모르던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자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초점은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사역에 있다. 이에 반하여 성서한국운동은 한국의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성서한국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이원론적인 삶을 바꿔야 한다. 주일만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주일처럼 지내야 하며,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서 성경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서한국운동이 추구하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은 민족을 초월하여 보편적 선교사역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서한국운동을 국수주의적 기독교 민족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성서한국운동이라고 할 때 일차적 초점은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성서에 초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선교를 매우 중요시하며 강조한다. 성서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우선은 내가 속한 민족부터 실천하자는 것이 성서한국운동이다. 춘천성시화운동도 마찬가지 아닌가? 춘천만 성시화 하자는 운동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도시가 성시화 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내가 사는 지역부터 성시화하자고 해서 전개된 것이 춘천성시화운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기독교는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된다. 기독교는 보편주의를 추구한다.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여기'이기 때문에 '한국'을 강조할 뿐이다.

성서한국운동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첫째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민족은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통일한국이라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무관심해선 결코 안된다. 바로 이런 태도가 이원론적인 사고이다.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막연하게 있으면 안된다. 세부적인 영역별로 대안을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며 준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통일이 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에 일만 명의 새터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이 될 때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성서한국운동은 통일한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둘째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정치영역을 예를 들어본다면, 공의정치포럼을 통해 성경적 정치인들을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경적 대안과 힘께 성경적 대안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고 배출해야 한다. 성서한국운동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하며, 사람을 기르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의 과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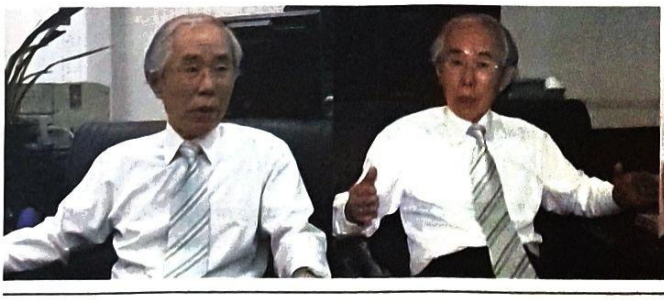
한국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다. 21세기 통일한국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목회자, 선교사, 성숙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들어 쓰실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우리교회 우상화'를 철폐해야 한다. 교회는 머리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몸이다. 먼저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같다. 비유가 적절합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개 교회에 유익하면 정의가 되고,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다.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한 가지 과제는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냉철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예배당중심의 철저한 주일성수의 삶은 6일 동안의 일상적인 삶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좋은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점당하면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존경심이 있어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 교회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봉사하며, 섬기고, 착한 일을 행한다는 인상을 각인시켜 주어야만 한다.

검소와 절제를 실천이며 강조하시는데, 소비를 미덕으로 아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검소와 절제를 실천하는 삶은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태양열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으며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나의 삶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왜곡해서 바라본다. 하지만 검소와 절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명령하는 삶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현대문명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경제적으로 볼 때 앞으로 강원도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일부러 굴뚝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이것이 경제적 부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사치와 낭비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기적인 욕심과 과욕을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통일한국시대에 한국교회는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낭비하고 사치하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통일한국대회를 준비하면서 춘천지역의 청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통일한국시대는 우리 앞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기독청년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오셨다. 통일한국시대를 섬길 기독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이다. '2007년 통일한국대회'는 한국기독교와 민족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한 시기에 열린다고 본다. 평양부흥 100주년 기념의 해이면서, 분단이후 끊어졌던 경의선, 동해선 철도가 다시 이어진 해이다. 통일한국은 하나님의 대세이다.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을 보고, 세계를 품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통일한국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준비된 통일만이 우리 한민족이 살길이며, 21세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비상하는 길이라 하겠다.





"2007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대회"
♦일시: 2007년 7월 24일(화)~28일(토)
♦장소: 춘천 강원대 캠퍼스
♦문의: 성서한국(02-734-0208)
www.biblekorea.org
춘천성시본부(033-256-1260-1)

취재일시: 2007년 5월 22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실
진행: 조명훈
글 정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선 교



사람을 세우는 북한선교

북한선교 일꾼을 양성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실제 사역 사례

1995년 식량난 이후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탈북자들이 많았다. 들어가서 일정 기간 심문을 받고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아픔을 알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 들어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다.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탈북자들을 돌보던 일꾼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만류함에도 그들은 즉음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다음은 일꾼들이 돌보는 탈북자들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형제의 고백이다.

"굶주림으로 가족들이 즉어가면서 나는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왔다. 결핵이 걸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저녁이 되면 기침이 나와 잠을 잘 수가 없고, 가래를 뱉으면 피가 자꾸 나왔다. 그런 나에게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다. 그 분은 나를 데려다 씻기고 약을 먹이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셨다. 나는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온갖 죄를 다 짓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병도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즉어가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견딜 수 없어 고향에 들아가 가족을 만날 결심을 하였다."

"강을 건너자마자 국경 수비대에 잡혀 총 개머리에 맞아 머리가 터졌다. 잠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 되어 집을 찾아가 부모님과 형에게 복음을 진하였다. 놀랍게도 복음을 들은 형은 나를 따라 중국으로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다. 나는 집에 가족들과 1주일 있다가 형과 함께 '공동체'가 있는 중국으로 넘어왔다. 더 많이 흔련을 받고 들아가리라."

"교회가 세워져 처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하교회이지요. 정말 강팍한 그곳에 하나님은 불치병에 걸린 공산당원을 위해 기도할 때 치료하셨으며, 손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료하시므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케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카타콤 소식).

예시된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모퉁이돌 선교회의 탈북자 사역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 많은 지하교회들이 세워지게 하는 선교전략이다. 이 사역은 5단계로 분류되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단계 : 북한을 나왔다가 들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2~3일 내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들아가도록 하고 있다. 북한으로 들아가는 이들이 필요한 것은 우선, 중국에 도착했을 때 사랑으로 보살피고 먹이는 것과 전도지 그리고 들아갈 때 필요한 식량과 물품, 성경 등이다.



2단계 : 1단계 사역 중에 성경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길 원하는 탈북자들을 돌보며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이들에게 2주에서 40일 안에 말씀을 가르쳐 다시 북한으로 들아가도록 하고 있다.

3단계 : 지도자 과정의 교육으로 2단계 과정에서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중국내 신학교에 달사역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북한으로 돌아가 복음을 진하고 지하교회 개척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익히는 훈련도 병행한다.

4단계 : 이 과정은 어떤 이유로든지 부득불 북한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중국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을 통하여 2단계 사역 중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한다.

5단계 :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중국 정착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특별히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을 진도하고 훈련시켜 말씀을 전파하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통제된 북한 지역에 수명 혹은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지하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은 북한 주민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더불어 육적 필요 또한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국경지역을 왕래해야 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사 · 조선족 사역자, 즉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조직하고 실행할 그 누군가가 필요할 때마다 지도자를 부르셨음을 본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많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제도, 학문, 그리고 다양한 외적 조건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신령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그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실제로 출애굽기 18장을 살펴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자격 있는 합당한 조력자를 세우도록 조언한다.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딤전 3:8-9)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이다.

에즈라 바운즈(E. Bounds)의 말과 같이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다.

(글 모퉁이돌 선교회)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평일,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체 환영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청년이여, 통일을 준비하라!

서 민 규 진도시(주향교회, 통일북한학 전공)

춘천기독청년포럼은 춘천 지역교회에 소속한 대학, 청년부가 연합하여 춘천의 기독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하여 균형적인 영적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차세대의 주역으로서 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 춘천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나친 개(個)교회주의로 인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미비한 상태이며,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로인해 제한된 사역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새롭게 돌파하고 청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기독청년포럼이 마련되어 3회째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

올 여름에는 성서한국대회가 통일을 주제로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게 된다. 이에 춘천의 청년들에게 미리 통일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년들이여, 통일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춘천기독청년포럼 제3회 세미나가 지난 5월 12일 오후6시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열렸다.

남북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이지만 우리 청년들 사이에는 남·북한의 분단현실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얼마나 통일을 염원하고 있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정말로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솔직한 자문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세미나에는 통일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선생님'과 2000년에 탈북 하여 상지대 한의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혜은 자매'가 초청되었다.

조명숙 교감선생님의 특강을 통해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하며, 그 비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은 뜨거워졌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도저히 살 수 없기에 탈북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중국으로 도강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탈북자들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조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또 가장 잘 할 수 있는, 가장 하고 싶었던 교사의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명숙을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간증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는 등기가 되었다.

그리고 주혜은 자매와 함께 북한노래 부르기와 자매의 생생한 탈북과정에서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내가 즐 수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과연 우리시대에 "통일"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언제쯤 통일이 될 것인가? 우리는 흔히 "통일"하면 제도의 통일을 생각한다. 분명히 통일에 완성은 제도의 통일, 즉 하나의 민족,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결과로 "1민족, 1체제, 1국가"라는 통일 산물만을 고집한다면 우리시대에 통일은 요원한 바람일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안에서는 김정일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청년포럼을 통해서 통일을 결과로 생각하기 보다는 과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에서는 1체제이든, 1국가이든 이런 정형화된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우는 삶에 "희노애락(喜怒哀樂)"적 측면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일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새터민들이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새터민 10,000명 시대를 살고 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터전에서는 "북한", "통일"이라고 하면 너무나 먼, 막연한 대상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북한 사람이었던, 그러나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온 새터민들이 있다. 결코 통일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춘천기독청년포럼과 같은 연합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함께하는 과정이 바로 남북이 통일되어 함께할 때에 서로를 인정하며 이해하는 좋은 연습이 되리라고 본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리라!





영 감리교 춘천지역 장로회 연합헌신예배 광

(춘천 동·서·남·북 지방)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사43:19)

♣ 일 시 : 2007. 6. 10(주일) 오후7:30

♣ 장 소 : 양구감리교회(양구읍)



강사 백 낙 영 목사 (양구교회)

회장 장준홍 장로 (춘천명성교회)

1. 모입시다 2. 기도합시다 3. 승리합시다

■임 원

심인섭(신성) 한주석(광장) 이영규(석사)
이무식(석사) 최광모(방산) 남궁갑(제일)
이영석(중앙) 이필순(남부) 함희원(신남)
김진현(벧엘) 최문길(우두) 장기호(중앙)
한명수(천대) 조병욱(우두) 허 천(신성)
장준호(명성) 홍세표(신성) 김석권(중앙)
이효진(한마음) 김현배(평화) 지영순(양구)
정연균(목양) 박무일(석사) 송병조(퇴계원)
강칠주(천대) 장근식(천전) 강경중(중앙)
김기기(석사) 김부희(광장) 김은묵(한마음)
김남웅(온의) 장충방(우두) 김영권(신성)
박래희(제일) 이준영(명성) 이호익(동원)

탐방 I



교회의 본질(本質)을 추구하는 교회

만천교회는 지난 1994년 5월, 최형근 목사의 부임 이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교회이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나누며 전파하는 교회, 초기 사도행전적 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선교 중심적 마음을 유지하여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한 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만천교회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만천교회(최형근 목사)편입니다.

만천교회와 최형근 목사

만천교회는 지난 5월에 새 교회의 건축을 마무리하고 봉헌예배를 드렸다. 2006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근 1년 만에 완성된 것이다. 새 교회를 둘러본 기자단은 일개 평범한 건물이라기보다는 주님의 혼이 담긴 예술품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배당의 설계와 시공은 모두 만천교회 교우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만천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되 오흘리압과 브사렐과 같은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을 많이 허락하셨다. 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등역자요, 그의 종 된 최형근 목사의 등역자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고향인 최형근 목사가 만천교회에 부임한 것은 지난 1994년 늦봄이었다. 그전까지 최 목사는 몇몇 곳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1981년에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입학, 1990년 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학생활동과 학보사 편집위원으로 사역하였다. 그 후 전임 목회자로서 주님의 첫 부름을 받은 것이 등혜시의 진리교회였다. 신학교 졸업 전 제천에서 교육전도사로 2년 정도 섬기며 기도하던 중 한 여권사의 제안으로 동혜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 최 목사가 강원도와의 첫 인연이었다. 마련된 정식 예배당도 없었고, 그저 여 권사의 뒷방에 마련된 냉동 창고에서 몇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이 시절, 돌아보면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고 최 목사는 회고한다.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등혜시와 인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봄과 몇 년 만에 100여명의 교우들로 발전하게 된다.

에티오피아 사역

이후 최 목사는 만천교회에 부임하여 지역의 여건들과 교우들의 상황을 파악하던 중 춘천이 에티오피아와 관련이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몇몇 집사들을 있음을 발견한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기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3차례에 걸쳐 6,000여 명을 파병, 강원도 춘천 인근의 화천, 양구, 철원 등 산악전투에서 120여 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부상한 우방이다. 이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에티오피아 기념탑이 공지천변에 위치한 것이 그 이유였다. 최 목사는 기도 중 에티오피아 사역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에티오피아 가정들을 선교하기 시작한 것이 1995년경. 기도와 함께 물질적으로 10가정을 돕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12년 전의 일이었다. 최근 이 사역은 에티오피아에서 요청한 소방차를 춘천시가 보낼 때 교회가 크게 협력하기도 하였다. 현재 시가 에티오피아 사역에 깊은 관심을 보여 동내면에 커피데마 파크(2만평)가 만들어졌으며, 에티오피아 현지에는 한국관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야곱의 꿈

에티오피아 사역으로 시작된 최 목사와 만천교회의 꿈은 현재 더 큰 꿈으로 변져가고 있다. 춘천 외곽의 "야곱의 쉼터"(대표/신광철 집사, 이사장/최형근 목사)가 비로 그 꿈의 작은 실현이다. 초기부터 함께 에티오피아 선교에 동참해온 신광철 집사 등을 비롯하여 작은 커피숍 "야곱의 쉼터"가 만들어졌고, 그 수익금의 상당부분이 하나님나라의 선교를 위해 다시 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야곱의 쉼터"는 단지 에티오피아 사역 뿐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제3세계 사역과 하나님나라 선교를 위해 발전해가고있는데, 금년 안에 화천, 가평, 서울 등 7-8개가 더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다.

교회 본질의 회복

최 목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는 목사로 알려져 있다. 최 목사는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한국 교회는 선교중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선교사들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양 우리 밖의 양떼들을 위해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초기 선교 중심적으로 존재하던 한국 교회가 100년이 지나면서 우리 안의 양떼들만 먹이고 위하는 사역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 선교중심적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멈추고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 목사의 지론이다.

그러므로 최 목사는 "교회는 내어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85%의 교회 밖 양떼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역설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만천교회는 10년 이상에 걸쳐 [장수식당]을 열어 노인들과 장애인에게 식사대접을 해온 미담이 있기도 하다.

복음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목회의 정신은 목민의 가르침을 중시하였던 "김재준 박사"의 신학사상을 계승하기 원한다는 최 목사와 빙혜윤 사모, 그리고 헌신된 교우들이 있기에 만천교회는 진정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 하겠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 교회차량 상담 환영합니다.
현대자동차
호반판매대리점
최 정 용 집사
011-379-1165
(E-mail: cjy1165@yahoo.co.kr)
♡아버지학교와 성시합창단,
그리고 가신감리교회를 섬기고있습니다.

| 역사자료

춘천 성시화운동의 태동(略史 2)



조 남 진 장로
(춘천성시본부초대본부장, 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화대회 이후 70-80년대

대성황리에 막을 내린 춘천성시화대회 후, 안타깝게도 춘천교회의 복회자들과 대학생선교회간의 의견마찰로 인해 '춘천성시운동위원회'는 해체되었고, 공식적인 '춘천성시화운동'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당초 이 운동의 모체였던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 모임은 계속되어 73년에 예수원 원장이신 토레이 신부님을 초청 성경강좌를 가졌으며, 74년에는 예수전도단 창설자인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을 초청 강좌를 열었고, 이어서 서울공대 황희웅 박사, 중앙대 최재선 박사 등 당시 새로운 신앙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시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활동은 계속됐다.

74년에는 10월 14~17일까지 강원 체육관에서 조용기 목사를 초청, '춘천복음화 대전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평신도모임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때 행사는 전도대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도 가졌으며, 군부대와 교도소 방문 집회 등 다양한 전도활동을 펼쳤다.

80년에는 1월 21일 제춘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복음화운동 위원회를 결성, 타 지역에서 활동하다 다시 돌아온 김언호 목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춘천시민을 그리스도에게로, 춘천을 성시화 하자"는 주제로 「춘천복음화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강사로는 김준곤 CCC총재와 김세칭 세계복음화운동총재를 초청했다.

90년대 성시화의 재심화

70년대 초부터 태동하여 72년 성시화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은 어떤 때에는 억등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면서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제목으로 삼아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렀다.

90년대에 이르면서 특이한 일은 강원도청, 춘천시청, 전신전화국, KBS, 강원일보 등 각 직장마다 신우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90년 4월 17일 춘천 · 춘성지역 8개 직장신우회가 등부장로교회에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생활을 바꾸는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때 91년 8월 춘천지방 검찰청 차장검사로 전용태 권사가 취임해왔다. 전 차장검사는 72년 춘천성시화 대회에 평검사 때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면서 춘천성시화 운동의 재현을 소망했다. 이리하여 봉의동에 있는 차장검사 사택은 성경공부의 요람이 되었고, 당시 김기수 검사장을 비롯한 일부 기관장들과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춘천성시화의 재점화를 지펴나갔다.

92년 8월 2일에 있은 '예수 평화 대행진'과 '성시화 연합집회'는 춘천성시화운동을 춘천시민에게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낮에는 「예수 평화 대행진」이란 표이를 쓴 현수막을 내걸고 시가행진을 하였고, 밤에는 전 과학기술처장관 정근모 장로를 초청한 성시화 연합성회(제일감리교회)가 열렸다. 이날 성회에서는 문선재 강원대총장이 춘천성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조남진 장로는 춘천성시운동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 모임에서는 1,500명의 교계지도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그 후 8개 직장신우회로 시작한 춘천 직장신우회 연합회는 33개 신우회가 가입하는 등 급진적으로 발전했다. [다음호에 계속]



| 영혼의 양식

"이 시대의 다니엘을 만나고 싶다"

- 단 1:8~21



길 근 수 목사
(세인교회)

지금부터 2600년 전, 유다 왕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를 '다니엘'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약 15세 때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범한 믿음으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환경과 시대를 정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예와 포로민의 신분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까지 되는 신화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우리의 도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캠퍼스의 위기는 '영성부재, 영적 지도자 부재, 영적 지도력 부재'의 위기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해서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오대양 육대주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우상에 바쳐 더럽혀진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머리엔 율법이, 십계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생관, 인생관,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성경을 머리에, 가슴에, 뇌리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헌신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웨 카도쉬' 곧,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지언정 '거룩'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명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만왕의 왕,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조와 언약을 지키기 위해 감히 포로민인 주제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힘, 이런 거룩한 고집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힘에서 뿜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존심에 목숨 건 자들이 되십시오.

넷째,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능력은 이방 점쟁이들이 감히 흉내 낼 수도 없는 역사를 관통하고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은 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매력은 학문과 지식, 외모와 소유, 능력과 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신적인 지혜, 영적 통찰력, 시대를 꿰뚫어보는 혜안,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헤독하는 총명함, 인간 역사 기운데 하나님이 휘하시는 비전을 보는 안목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매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초자연적 선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이러한 능력과 선물을 언제 받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의 배경은 순수 신앙의 삶,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자존심의 선언, 그리고 그 선언에 따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신앙적 담력의 행사(열흘 동안 채식만 먹는 시험), 바로 이러한 탁월한 헌신적 삶이 다니엘의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배경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그릇에 하늘의 능력을 담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춘천 땅에서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로얜델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나누기 원하는 곳
♣ 온라인, 자동이체, 전자금융으로 더 편리하게!!
♣ 대출은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낮은 금리로!!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을 꼭 준비하세요!!
춘천와이신협
운교본점: 255-1007 (1층신협, 3층기독교연합회, 4층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현진에버빌 2차 옆)



스토리 오브 어스(story of us)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스타주유소 남궁역 김학자 부부(온누리교회) 편입니다.

교회와의 만남

남궁역 집사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모두 유교와 불교를 믿는 까닭에 어린 시절 대보름이 되면 아버지가 형제들을 모두 불러 밖에 나가서 달에게 절을 하며 1년 농사의 대풍을 기원하곤 했다. 어린 시절 남궁 집사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그 친구들 중 어느 누구도 교회에 다니자고 권유하지 않았단다. 부모님이 칠저한 불교신자라는 것을 의식한 까닭이다. 본인도 그런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원주에서 보냈는데, 믿음은 없었지만 운동을 좋아하여 교회 연합체육대회에 찾아가 참석하곤 했단다.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그는 4학년 때 친구 결혼식에서 아내 김학자 집사를 만나 85년 결혼하였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서 김학자 집사는 가정방문을 하며 전도하는 어 집사를 만나게 된다. 그녀가 자주 김 집사의 집 초인종을 눌렀단다. 결국 김 집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에 출석한 지 3개월 되던 때 남편에게 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권유하게 되었다.

신앙과 생활

남궁 집사는 아내의 권유로 교회는 다녔지만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각종 모임이 주일날 있는 까닭에 자주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아내와 잦은 말다툼을 벌이곤 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믿음이 자라던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아내와 상의 후, 다니던 대그룹 기획실을 박차고 나와 강서구 화곡동에 '바을 기독교백화점'을 개업하였다. 그러나 목사나 전도사를 사칭하며 속이는 사람들, 도서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교역자나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던 마음은 식어졌다. 고난과 시련이 겹치면서 결국 기독교백화점을 접고 기도원에 들어가 삼일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 주님은 남궁 집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부천에서 제조업을 하게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다. 직원은 이십십 명으로 늘어났고 사업은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으며, 결국 사업을 실패하고 촌천에 내려오게 된다. 남궁 집사는 이때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당시 김학자 집사는 철저하게 십일조 생활을 하며 전도를 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지만 용기를 북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목회자의 얼의한 사택과 교회 비품을 보며 자신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직장을 다니기로 결심했던 김학자 집사는 5생명에 입사한 지 벌써 22년이 되었고, 현재는 임원으로활동하고 있다.

촌천에 내려와 측협에 다니던 남궁 집사는 서을에 있는 회사에 재무담당자로 입사하게 된다. 그때부터 주말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은혜. 사업실패로 갈등이 짖던 부부사이가 오히려 좋아졌고 늦등이까지 생겼다. 뒤늦게 임신한 것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김 집사, 남편 몰래 증절수술을 결심한다. 수술은 주일오후 1시. 하지만 주일에배 설교를 통해 아이의 생명을 절대 지워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주셨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즉일 뿐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때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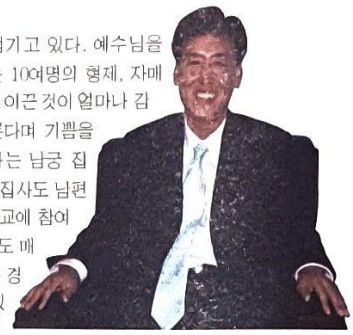


집사는 주일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주일을 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신조이다.

변화와 믿음의 터전

남궁 집사는 2005년 11월 15일 현 스타주유소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주유소를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10가지라면 그에겐 한 가지 정도만을 갖췄을 뿐이었다. 주유소를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었다며 웃는 김 집사.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다.

남궁 집사를 다시 촌천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또 다른데 있었다. 바로 아버지학교와의 인연을 맺게 하신 것이다. 교회 장로님의 권유로 아버지학교에 참여하면서 그 자신의 상처가 치유 변화되었고, 가정도 변화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다. 이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였고, 현재는 아버지학교와 부부학교 스텝으로 섬기고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10여명의 형제, 자매를 주님께로 이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남궁 집사. 아내 김 집사도 남편이 아버지학교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매일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잘 안되는 남편대신 가정경제를 도맡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싹텄다. 하지만 아버지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고 계심을 깨닫는다. 그래서 사업을 염려하는 대신 남편을 통해 나를 어떤 부분에서 또 깨뜨리실까 기대가 된다고 한다.

믿음의 기업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남궁 집사의 사업원칙은 첫째, 하나님께 정직이다. 주유소 사업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종종 의심받는다. 따라서 그는 주님의 사업체로서 정직의 본보기가 되려고 한다. 두 번째는 고객들에게의 친절이다. CBS를 통해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기업이라는 것을 다 알기에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김 집사는 남편의 사업원칙에 몇 가지를 덧붙인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녀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선교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 집사의 권유로 아버지 학교에 등록한 직장 상사가 크게 변화되어 현재 직장에서 상사의 신앙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한다. 그녀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면 자신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고백한다. 올해 김 집사는 20평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꿈을 갖고 있다. 네 번째는 직장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김 집사가 소장을 맡고 있는 영업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직장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현재 다른 영업소로 확산되어 다섯 개 영업소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이 예배로 인해 동료들끼리 사랑이 싹트고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로 돕는 베필이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GS 칼텍스 KIXX
스 타 주 유 소
후평공단 사거리 세경1차 아파트 앞
☎242-0238 fAX 243-0139
대 표 남궁 역 집사(춘천온누리교회) 011-9902-3343
삼성생명 의암영업소장 김 학 자 집사(춘천온누리교회) 011-708-3412
♡아버지학교 춘천6기, 부부학교 춘천1기 수료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21년 개업11주년 기념세일
여자한복
남자한복 20~30%
두루마기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243-9019, 011-1788-8406 김 개 순 집사(춘일교회) (약사동 대일금고 옆)

"그리스도인, 당신은 땅의 소금입니다"

환경문제는 일종의 세계관과 영적인 문제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계시되어 있다(시19; 롬1:17-20). 이끼 낀 바위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거나 한 겨울의 은은한 매화를 보며 고결함을 느끼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개선하리는(창3:16-19; 롬11:24)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며(롬1:25), 그 자체에 있는 것을 빛으로 생각하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계시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자기 스스로의 빛을 따라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자기에게 내재해 있는 힘으로 자신의 구원자 노릇을 하고 자기가 자신의 신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보기와 받아 누리기를 거부한다.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딤전4:3-5). "주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땅으로부터 이 빵을 소출되게 하신(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등등)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는 말씀을 능부와 어부의 심정으로 듣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학자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서양기독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을 잃게 만들었다.

조금 이려운 질문을 하겠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는 줄을 아는가?(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한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줄 아는가?(롬8:19-25) 환경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앞에서 말하였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제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부터는 아무 쓸모가 없어, 다만 내던져져 사람들의 발아래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3-14) 땅의 소금이라고 해야 맞다(창3; 대하7:14; 삼하21:1 등등). 환경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 회복의 문제이다.

내 앞에 세종연구원에서 펴낸 물에 관한 책이 놓여 있다. 춘천을 물의 고장이라고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벧후3:5). 물이 없는 생명체는 상상할 수 없다. 물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 몸의 70% 가량이 물로 이루어졌으며, 물이 1-2%만 모자라도 심한 갈증과 피로를 느끼고, 5% 정도라면 정신을 잃게 되며, 12%를 잃으면 목숨까지 위태롭다. 지구상의 지표면은 71%가 덮여 있지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지표수는 고작 1% 남짓하다. 널린 게 물이라지만 실제로는 귀하다. 실제로 휘발유보다 물이 비싼 나라도 있다.

작년 한 해 춘천의 소양강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흙탕물이 되어갔다. 세상이 아파트 문화로 점점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인간의 심성도 함께 파괴되어져 간 것처럼 말이다. 장마가 다가온다. 회복이 되어가는 강이 다시 흙탕물 강이 될 것 같아 염려된다. 자기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 속에 빠졌으면, 블잡이 들어내면서도 병들이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은 생각지 않는 것과 같은 이기적인 생각이 문제이고, 다스리는 자들의 지혜와 권력의 부재 때문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안전하게 해야 한다(잠11:14; 15:22; 24:6).

설계가 전공이었던 나는 거닐다가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을 때가 문뜩 있다. 건물, 간판을 정비하고 싶고, 아름다운 이 자연(성경에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싶고, 보기 좋지 않은 자연은 개선하고 싶고… 특히 교회당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나는 교회당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벨탑과 같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룩함의 그 아름다움이 교회당 건물에서 보였으면 한다(시27:4; 90:17 나는 부흥(?)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가 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해를 누구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누구에게 내려 주시는가? 생각해 보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라, 그것이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도 되자.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마6:25)는 말씀을 하신 주 예수님으로 살자. 한 이인이 예수님께 물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소들이 다 먹었으니, 선생님께서 야곱보다 더 크시니이까?"(요4:12) 생명을 위해 마실 것을 준 아곱을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요6:15).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왕)를 선포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옛 것이 지나갔음을 보여주라.

[편집부 이영규]



예 향

"눈높이의 사랑"

영국의 여류작가 조앤 롤링은 해리 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린이들은 주인공 해리 포터와 똑같은 구식 둥근 돌테의 안경을 쓰고 그와 똑같은 복장을 하며, 그의 모습이 그려진 생일 케이크를 받고 싶어 한다. 어른들에게까지 해리 포터 시리즈가 읽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향수가 남아있어 주인공의 호기심에 동감하는 까닭이다. 이를 볼 때 작가 롤링은 "눈높이 교육"의 전문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누구를 대하든지 눈높이 사랑을 베풀자. 눈높이 사랑을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무릎을 꿇어야한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촌감리교회
광영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중앙교회
서춘천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담장로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외이신협(심인섭)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국민일보춘천지사
강원기독문화연구소(김기대)	

앤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제시뉴욕	고석복	김준언
김길홍	김현철	김영명
민병업	박동환	성기온
신성균	신종철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흥수
이국정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판호	이학규
이병연	임희방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포·토·에·세·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들의 풀은 따란싹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지요
꽃은 피어오르는 꽃망울에 사랑의 말을 담고
바람은 저렇게 흰 머리를 앞세워 끝없이 노래하며
태양은 눈부신 햇살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 첫마디 말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섭섭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우리의 입으로 사랑을 말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으로 칭찬과 격려를 말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또 함께 일하는 정다워야만 할 사람들에게
오늘의 만남을 "샬롬"으로 인사하고
눈을 열고 입술을 흔들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하고 수많은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우리를 덮고도 남을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

시. 김 용 배 장로(소양교회)

행사안내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033) 244-1391 (홈페이지)www.1391.org

▣ 춘천 YMCA ▣
☎(033) 255-1008(주중), 010-3013-5868(주말)

▣ 월드비전 ▣
♣ 가족나들이
1. 일시: 6월 9일(토) 08:00~19:00
2. 장소: 올인에버랜드
3. 대상: 등록아동 및 가족 150명
4. 문의: (033)254-7244

✣결식아동돕기 제7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1. 기간: 3월 ~ 6월
2. 주최: 강원도민일보·춘천MBC·월드비전강원지부
3. 후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4. 성금사용처 계획
1) 강원도내(100,000,000원) - 강원도내 결식학생(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
2) 국내(80,000,000원) 도시락 사업
3) 해외(150,000,000원) - 아프리카 잠비아에 초등학교 건축사업(현판에 강원도어린이명기)
5. 참여방법
1) 성금계좌: 농협 204-01-078120
신한 515-01-038052
3) 후원문의: 033-912-2004, 3004.

수지침

▣ 요통(허리를 삐거나 잠을 잘못 잤을 경우) ▣



장부(臟腑)의 기능이 부조화되고 질환이 있을 경우-예를 들어 과로, 변비, 자궁질환, 신장질환, 근육긴장 등-에는 허리가 유연하지 못하고 긴장되어 있어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런 때 과로하거나 심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 허리를 삐는 경우가 많다. 수지 배부(背部)의 상응부에서 반응점을 찾아 손끝으로 꼭꼭반복지압을 계속한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섬김 그리고 감사



봄내 호스피스 기쁨의집
사무국장
박 상 운 장로
(소양교회)

대룡산 기슭에 아침 안개가 걷히고 동녘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기쁨의 집 하루가 바쁘게 시작 된다. 봉사자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면, 봉사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간단한 아침 미팅을 하게 된다. 복음성가 두곡과 삼분 메시지, 그리고 간호사님의 환우 설명과 기도시간, 힘하여 십오 분이면 끝나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지하다.

이곳 봄내 호스피스 기쁨의 집은 고통당하는 말기 환우들이 마지막 생을 정리하며 생활하는 곳이다.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드려지는 예배와 영적 케어를 통하여 환우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한분한분 올려드리고 있다. 환우들을 돌보며 헌신하시는 천사 같은 간호사님들과 환우들의 식단을 담당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매일 교대로 찾아와서 봉사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 큰 감동을 받는다.

아름다운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요즘, 환우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기쁨의 집 주위를 산책 한다. 그들은 들꽃하나 풀잎 하나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환우들의 마음은 우리와는 다르리라 생각된다. 이제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환우가 있었고 내일도 대기하고 있는 환우가 있다. 죽음이란 나와는 관계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부끄럽게 생각되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시어 주님의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기쁨의 집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시 문교동 174-3 와이신현3층
춘천성시신문사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성전(중·소교회)꽃꽂이, 동양꽃꽂이

◆장 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3시<중·소 교회 성전꽃꽂이> 매주 토요일 오후4시30분<동양꽃꽂이>
◆강 사 : 양금환 교수(숭틀라워춘천지회장)
◆내 용 : 중·소 교회를 위해 소박하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꽃꽂이 강습과 오리엔탈적인 신비스런 미를 강조하는 동양꽃꽂이 강습으로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
◆회 비 : 초급과정 4만원(매주 꽃값은 개인부담)

기독 다도(茶道)회

◆장 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일 시 : 5월 1일(화) 오후2시, 오후6시30분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2시(A반), 오후6시30분(B반), 아루 2회>
◆강 사 : 장은자목사(크리스천티아카데미원장), 서영의(다도회회장), 최태자(다도회 총무)
◆내 용 : 다도에 대한 역사와 기독교적 의의를 알고 다도를 통한 예의범절과 신앙적 인격수양을 연마하며 다양한 차들의 효과 및 건강관리 비결을 배운다. (예: 차와 기도, 절대하는 차, 나누는 차, 차와 폐백, 구역예배 행다, 항암, 당뇨, 감기, 비만 등에 따른 차의 약효, 건강상식)
◆회 비 : 4만원(다구 및 차는 개별적으로 구입)

천연화장품 만들기

◆장 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일 시 : 8월 27일(월) 부터 개강
◆강 사 : 박정숙

교육인적자원부등록 사회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인재한국 개원

※ 문 의 처: 본원 사무실(춘천 CBS 3층)
☎033-241-8801, 8802
HP: 011-9735-5191, 011-372-9100

칼 럼



함께 사는 세상

최영조 목사
편집위원장 (갈릴리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이 누리는 삶에 필수적인 요소는 생존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일 것이다. 인간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가령, 아무리 가치 있는 일도 생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생존하기 위해 가치를 무시해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게 된다. 물론 드물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생존을 포기하는 희생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존과 가치는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문제는 누구나 한 것 없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죽는 문제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오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나서 내게 돌아오는 결과가 멀게 느껴지기에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이 더 큰 재앙을 부르고 있다. 이 재앙의 근원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 곧 자연환경 파괴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환경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환경이 게선되지 않으면 요원하다. 왜 인간환경이 이토록 파괴되어 살맛을 잃어가는 세상이 되는 걸까?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인간의 무서운 개인주의를 만나게 된다. 현대인들은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웃을 모르는 얼어붙은 인간환경이 자연과 환경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세상의 물결이 이제는 교회에까지 밀려들어 오고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도, 또 타인이 내게 보이는 관심도 다 귀찮아한다. 나 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부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도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해도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방관하기 일쑤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7-18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실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 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파헤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다시 자연을 통해 사람들이 그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진 관계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우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대인간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자연과 환경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6월 16일(토) 오후6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2) 6월 목동모임
일시: 6월 2일(토) 오후6시
중학교리더: 오후1시 / 고등학교리더: 오후6시
장소: 메드로선교센타 5층
3) 2007년 예스컴썸머캠프
일시: 1차 8월 2일~4일 / 2차 8월 6일~8일
장소: 종신수양관 강사: 박상철 목사
주제: 위대한 인생(창6~9장)
등록 및 문의: 244-5400 [club.cyworld.com/yescomecamp]
한승연 간사 016-369-6994
신유정 간사 010-5422-2321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동아시아 단기선교 합숙훈련
일시: 6월 25일(월)~30일(토) 장소: 춘천CCC회관
2) CM 2007 Pre-conference
일시: 6월 30일(토)~7월 2일(월)
장소: 부산 벡스코 문의: 254-5776
3) CCC 어린이집 교사모집 1인
문의: 010-9533-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예배세미나
일시: 6월 4일(월) ~8일(금) 장소: 춘천중앙감리교회
강사: 박희광, 심형진, 윤주형 회비: 일일1만원, 전체3만원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3) OPEN 선교대회
일시: 2007년 8월 15일(수)~18일(토) 3박4일
인원: 선착순 2,000명 장소: 현대 성우 리조트(강원도 둔내)
강사: 로렌 커닝햄, 존 도우슨, 테이빗 헤밀턴, 홍성건, 문희곤 등
회비: 1인 12만원 등록방법: 02-333-8122~3

◆IVF
1) 강원 IVF 출신 전임사역자 모임
일시: 6월 11일(월) ~12일(화) 장소: 미정
2) 강원 IVF 여름수련회
일시: 6월 25일(월) ~30일(토) 장소: 가평 승동기도원
강사: 김병연 목사, 오제복 전도사 문의: 252-5200

◆JDM
1) 전국 이사수련회
일시: 6월 5일(화) 오후8시 ~ 6일(수) 낮12시
장소: WDTI(세계제자훈련원)
2) 전국 청소년 CCM, CCD경연대회
일시: 6월 2일(토) 오후2시 장소: WDTI(세계제자훈련원)
3) 춘천지구 종강예배
일시: 6월 14일(목) 장소: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4) 전국 대학 여름집회
일시: 6월 26일(화)~30일(토)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문의: 252-3192 / 011-9058-3192

◆어린이전도협회
1) 여름성경학교 설명회
일시: 6월 7일(목) 오후6:30분 장소: 메드로선교센터 5층
회비: 무료 선착순 100명
2) 학교 순회 전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1:30~4:00
※춘천6/7 봉의6/14 동춘천6/21 교동6/28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cfch/]

◆GBT성경번역선교회
1) 춘천지부 리트릿
일시: 6월 15일(금) ~ 16일(토) 장소: 원주
2) 위클리프스쿨 평기회
일시: 6월 27일(수) ~ 29일(금) 장소: 동해망상
문의: GBT춘천지부 033)252-3927
이지혜 간사 017-383-2416 [033@gbt.or.kr]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김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및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방이선교회(신광교회 유근월목사)

◆장애인 초청 관광 및 문화체험
일시: 6월 4일(월) ~ 8일(금) 4박5일
장소: 김유정문학관, 유인석기념관 등 춘천근교 관광
내용: 제주도 시회복지법인 선도원 장애인 31명 초청
문의: 우리순복음교회 김재범 목사 011-754-5432

◆UBMK(올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춘천교경협의회
1)부흥성회
일시: 6월 3일(일) ~ 6일(수) 오후7시 장소: 평화감리교회
강사: 박병선 집사(진돗개 전도왕),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2)지도자 세미나
일시: 6월 5일(화) 오후3시 장소: 평화감리교회
대상: 목회자, 장로 문의: 252-1717

◆ 춘천홀리클럽 창립11주년 기념 성시화선교대회
일시: 6월 8일(금) 오후2시, 오후7시 장소: 석사교회
내용: 오후 2시 기념예배 및 성시운동포럼
오후4:30분 전국홀리클럽 수련회
오후 7시 성시합창단 찬양, 특별집회
문의: 김영명 사무국장 011-9792-5775

◆ 선교특강 : 이슬람, 바르게 알자
일시: 6월13일(수) 오후7시30분 장소 : 은혜장로교회



Joseph's English
조셉 잉글리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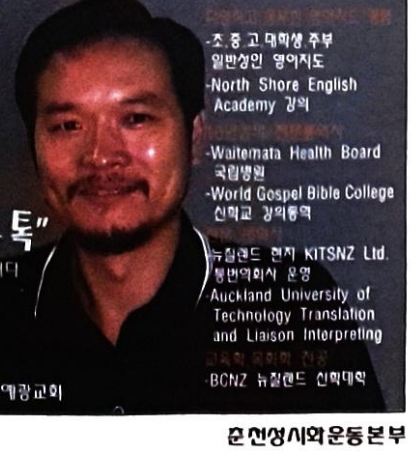
- 동시통역식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영어회화 훈련프로그램
- 원어민과의 실제 대화법 노하우 공개
- 오랜 해외 생활에서 쌓이온 Network 을 활용, 영어코스에 이어지는 장단기 영어연수/선교여행 등 실제적인 실습 기회 제공
- 효과적 학습교재
Touchstone(Cambridge University Press)
Get Real(McMillan Education)
English Grammar In Use

Joseph's English 기초 영어회화
Joseph's English 본격 영어회화 집중코스



- 강의시간
기초 회화반 오전 10:00-12:00 월,화 Class / 수,목 Class
본격 회화반 오후 07:00-09:30 월,화,목,금 Class

6개월이면 생생영어가 입에서 "톡-톡"
원어민수준의 활용으로 따라하기와 동시통역식의 훈련력있는 강의가 시작됩니다!
교육내용에 관한 공개설명회
기초회화반(오전반)설명회 2007.06.18(월) 오전 10시
본격회화반(저녁반)설명회 2007.06.25(월) 오후 7시
문의 - Tel.033)252-1004 or 252-3369 MP.010-9576-9004
본원 - 강원도 춘천시 효자 1동 373 - 83, 춘천 경찰서 뒤 효자소망서점 옆광교회



-조,중,고,대학생 주부 일반성인 영어지도
-North Shore English Academy 강의
-Waitemata Health Board 국립병원
-World Gospel Bible College 신학교 강의통역
뉴질랜드 현지 KITSNZ Ltd. 통번역회사 운영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Translation and Liaison Interpreting
-BCNZ 뉴질랜드 신학대학

■ 사랑을 나누면 행복합니다!



월드비전강원지부(박재호 지부장)와 강원도민일보(김종식 사장), 춘천MBC(한병우 사장)가 공동주최한 '2007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이 5월 29일(수) 오후 1시 춘천시청광장에서 열렸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광준 춘천시장,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등 각 기관 단체장들과 시민들이 함께 한 본 행사는 강원도내 결식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잠비아에 희망의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과 온정을 나눴다.

■ 이웃사랑 전동휠체어 무료기증



오순절교회(담임:김지훈 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8일과 24일 2회에 걸쳐 "이웃사랑 전동 휠체어 무료 기증식"을 가졌다. 오순절교회는 국제라이온스클럽과 해병대복지단, 대세엠케어의 후원을 받아 12대의 전동휠체어를 몸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 어르신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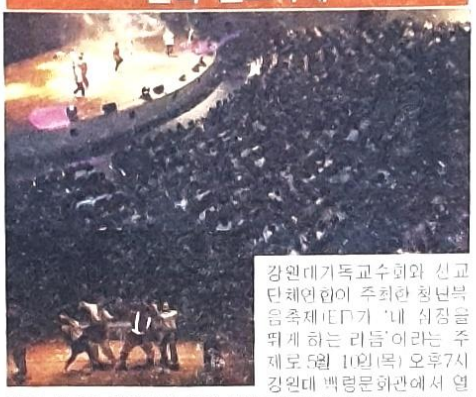
춘천제일감리교회(담임:원종국 목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10일(목) 오전10시 지역 어르신들 약600여분을 초청, 경로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경로잔치에서는 국악과 성악공연, 가야금, 바이올린 연주 등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점심식사를 대접,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였다. 본 교회는 매월 월정을 지닌 65세 이상의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일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3일(주일) 오후7시30분 본 교회 대예배실에서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특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평창동계유치 홍보영상물 시청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는 날까지 매일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 성시화를 위한 홀리클럽기도회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 장로)은 5월 21일(월) 오전 6시30분 원린순복음교회에서 "춘천성시화를 위한 제13회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 후 6월 8일 창립11주년을 기념하는 성시화선교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보고 및 계획안을 결의하였다.

문화 전도축제



강원대기독교수회와 신교단체연합이 주최한 청년복음축제(EF)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리듬'이라는 주제로 5월 10일(목) 오후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열렸다. 음악과 강연의 범주 형식에 그대로 적용하여 문화로 비기독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EF에서는 2007 HOT 청년 문화 코드인 'B-BOY' 공연과 THE PLAY(뮤지컬팀)의 '떠벌이' 공연이 펼쳐졌고, 이상민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백령문화관을 가득 메운 이날 행사는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열정, 재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다.

한가족 체육대회



춘천시장로교연합회(회장 문종식 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4일(목) 오전10시 고슴도치섬에서 "한가족 체육대회 및 사랑의 바지회"를 개최했다. 개회예배 후 에어로빅과 체조, 축구대회, 점심식사, 경품추첨 등을 펼쳐 춘천지역 장로교회와 성도들 간의 연합을 도모하였다. 특히 이 대회는 사랑의 바지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뜻 깊은 행사였다.

■ 창조 도시를 위한 열린포럼



창조도시 시민포럼(상임대표:박의범 교수)은 5월 18일(금) 오전7시 한림대 고령사회교육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창조 도시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광준 춘천시장과 박용수 GTB 강원민방대표이사는 축사를 하였고, 초청강사 정장식 교수(전 포항시장,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실 비서관)는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하였다.

■ 신성교회 성전봉헌 감사예배



신성감리교회(담임:김창수 목사)는 지역선교를 위한 제도약을 위해 새 성전을 건축하고, 5월 13일(주일) 오후4시 성전봉헌 및 장로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요한 대전목원대 총장, 김남힐 동부연회감독, 국회의원 허천장로, 원종국 목사를 비롯해서 동부연회 진·현직임원과 관내 감리교회 목사 장로, 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전 건립을 축하하고 3명의 장로 취임을 하였다.

■ 열린음악회



CBS춘천방송(본부장:김광수)과 춘천중앙감리교회(담임:권오서 목사)는 CBS 춘천방송 개국 12주년을 기념하여 5월 13일(주일) 오후7시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린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가수 신수봉과 유리상자를 비롯해 CCM가수 아침과 사랑이야기가 출연하여 지식들의 허트곡과 찬양을 불렀다. 김광수본부장은 "개국 행사를 처음으로 교회와 연합하여 열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방송이 되겠다"고 전했다.

■ 제4회 CBS배 교회대항 전국축구대회 준우승



춘천안디옥감리교회(담임:유진형 목사) 다니엘축구선교단(회장:박만종권사)은 제4회 CBS배 교회대항 전국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다니엘축구선교단은 처음 본선에 출전하여 2차전 전년도 우승팀 서귀포제일교회를 이기고, 3차전 예진승과 겹승에서 1:1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1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최우수 공격상(손동장 선도)과 최우수 골키퍼상(서성원청도)을 수상하여 그 기량을 다했다.

■ 행복마을 건립 기공식



해비타트 춘천지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과 함께 5월 19일(토) 오전 11시 신북읍 천전리 소방의 마을에서 "해비타트-Kwater 행복마을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해비타트 춘천지회는 이 사업을 통해 소방의 마을에 2개동 8가구의 주택을 짓게 되며, 이버지학교를 통한 가정회복 사역에도 협력하는 등 더욱 다채로운 사업을 계획추진하게 된다.

[편집부 김미경]



